

**7/14 월요일**

*메시지 1 - 예표를 통해 밝혀지고 전달되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내재적인 계시*

*메시지 2 - 시대의 이상을 가진 시대의 사역자들 긴밀히 따름으로써 시대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네 여정*

**고전 10:11**

11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시대들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왕상 2:11-12**

11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사십 년이었다. 그는 헤브론에서 칠 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다스렸다.  
12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으니 그의 왕국이 견고히 세워졌다.

**왕상 6:1-2**

1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사 번째 되던 해 시브월(이것은 둘째 달이다)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2 솔로몬왕이 여호와께 건축하여 드린 집은 길이가 육십 규빗, 너비가 이십 규빗, 높이가 삼십 규빗이었다.

**엡 1:10, 22-23**

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엡 3:9**

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골 2:9**

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골 3:11**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딤후 1:4**

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왕상 19:9-12**

9 엘리야는 그곳의 동굴로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때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0 엘리야가 말하였다. “제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몹시 질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언약을 저버리고, 여호와와 제단들을 무너뜨리며, 여호와와 신언자들을 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 혼자만 남았는데, 그들은 제 목숨도 노리고 있습니다.”

11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밖으로 나가 산 위, 여호와 앞에 서라.” 그리고 갑자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여호와 앞에서 산을 나누고 바위들을 산산조각 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와는 그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12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와는 그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다음에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이 있었다.

**왕하 2:1-14**

1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할 무렵,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을 떠났다.

2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멀리 베엘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여기에 머무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 것과 스승님의 혼이 살아 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베엘로 내려갔다.

3 베엘에 있는 신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를 만나러 나아와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오늘 선생님의 주인님을 선생님의 머리 위에서 데려가시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들 하십시오.”

4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고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엘리사 그대는 여기에 머무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 것과 스승님의 혼이 살아 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기고로 갔다.

5 여기고에 있는 신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다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오늘 선생님의 주인님을 선생님의 머리 위에서 데려가시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들 하십시오.”

6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여기에 머무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 것과 스승님의 혼이 살아 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갔다.

7 신언자 수련생 가운데 오십 명이 뒤따라갔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멈추어 서자 그들도 두 사람을 마주하고 멀찍이 멈추어 섰다.

8 엘리야가 자신의 겂옷을 벗어 만 다음 그것으로 강물을 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9 그들이 건너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그대에게서 데려가기 전에 내가 그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 보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스승님의 영의 두 배의 몫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10 엘리야가 말하였다. “그대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대에게서 데려가실 때 그대가 나를 보면 그대의 말대로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대의 말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11 그들이 계속 길을 가며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 병거와 불 말들이 나타나더니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12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부르짖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병이시여!”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잡고 두 조각으로 찢었다.

13 그러고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겂옷을 집어 들고 돌아와 요단강 독에 섰다.

14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겂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며 말하였다.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사가 다시 강물을 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엘리사는 건너갔다.

## 오늘의 읽을 말씀

### 열왕기상 1 장 1 절 각주

[1]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서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몫으로 주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참조 신 8 장 각주 7)를 체험하는 길을 예표의 방식으로 자세하게 묘사한다는 점이다. 먼저 여호수아기는 좋은 땅을 얻고 차지하고 유지하는 길을 보여 준다. 그다음으로 사사기와 룯기와 사무엘기상과 사무엘기하는 몇몇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한 이후에 어떻게 좋은 땅 안에 머물며 좋은 땅을 누렸는지를 보여 준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더 많은 사람이 어떻게 좋은 땅 안에 머물며 좋은 땅을 누렸는지를 보여 주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들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좋은 땅을 누렸다. 그들은 신약의 믿는 이들에 대한 예표이다. 신약의 믿는 이들은 왕의 직분(롬 5:17, 딤후 2:12, 계 20:4, 6, 22:5 하)이라는 높은 수준에서 그들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묘사된 그림은 다윗왕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모든 왕의 성격과 의도와 선호와 습관과 도덕성과 행적을 자세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그림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하고자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모든 풍성에 참여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 그림은 모든 왕이 왕의 직분이라는 복된 상황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고 그들의 유업을 돌아보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닥친 하나의 비극으로 마무리된다. 결국 그들은 좋은 땅을 잃고 포로가 되어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때 엄중한 경종과 경고가 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앞서 언급한 어떤 문제들에서 잘못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손실을 당할 것이다. 레위기 18 장 각주 25 참조.

열왕기의 중심 사상은 왕들이 이 땅의 신성한 왕권을 무너뜨리고 훼손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것과, 하나님의 공정한 다루심으로 말미암은 비극적인 결과이다. 그 결과는 곧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인 거룩한 땅을 상실한 것과 그리스도의 계보의 노선을 유지했던 거룩한 백성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이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사로잡혀 감으로써 그리스도를 인성 안으로 모셔 오기 위해 필요한 두 노선은 거의 끝나게 되었다(참조 마 1 장 각주 16). 그러할지라도 마태복음 1 장 1 절부터 17 절까지에 있는 계보에 따르면, 포로 시기에 이 두 노선은 계속 유지되었다. 하나님은 좋은 땅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된 십사대(마 1:17 하)를 보존하시려고 그분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상태에서 귀환하게 하셨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삼일성 안에서 인성 안으로 가져오시고 그분의 영적인 왕국을 세우시려는 의도를 여전히 이루어 가셨다.

### 열왕기하 2 장 1 절 각주

[1] 엘리야는 구약 경륜에 따른 구약 시대의 예표이고, 엘리사는 신약 경륜에 따른 신약 시대의 예표이다. 길갈, 벳엘, 여리고, 요단강(왕하 2:1-8)이라는 네 장소를 통과함으로써 시대가 전환되었다.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받고 그들의 육체를 처리한 곳이다(수 5:2-9). 벳엘은 세상을 버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취한 곳이다(창 12:8). 여리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으로 들어갔을 때 반드시 패배시켜야 했던 첫 번째 성으로서, 하나님의 원수 가운데 우두머리인 사탄을 상징한다(수 6:1-27). 요단강은 신약의 침례가 시작된 곳으로서, 죽음을 상징한다(마 3:5-6 와 각주 6).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자신의 겂옷으로 물을 쳤는데, 겂옷은 부어지신 영

곧 능력의 영의 예표이다(왕하 2:8). 능력의 영께서 죽음을 강을 처리하심으로써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고(갈 5:24), 세상을 버리고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요일 2:15-17), 사탄을 패배시키고(계 12:11),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롬 6:3-4, 갈 2:20)을 상징한다.

### 열왕기하 2장 8절 각주

[1] 엘리야의 걸옷은 부어지신 영 곧 능력의 영의 예표이다(눅 24:49, 행 1:8). 우리가 엘리야의 걸옷 곧 능력의 영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을 따라 길갈에서 벳엘로, 벳엘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참조 왕하 2장 각주 1). 더욱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옷을 둘로 찢어야'(왕하 2:12)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존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비교 마 16:24). 우리는 이 모든 단계를 거쳐 새로운 시대, 곧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운 일들을 하시는 신약 시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 7/12 화요일

*메시지 3 - 엘리사는 생명 안에서 은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행자로 처신하였음*

*메시지 4 - 솔로몬의 찬란한 왕국은 천년왕국에 있을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표임*

### 왕하 4:9

9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였다. “늘 우리를 거쳐 지나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나는 이제 압니다.

### 눅 4:27

27 신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 눅 7:11-17

11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도 함께 따라갔다.

12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마침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데, 죽은 이는 외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그 성의 많은 사람이 과부와 함께 뒤따르고 있었다.

13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울지 마십시오.”라고 하시고는

14 다가가시어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청년여,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시오.”

15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위대한 신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라고 하였다.

17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그 부근 모든 지방에 두루 퍼졌다.

### 왕하 2:19-22

19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만, 물이 나빠 땅은 씨가 말라 가고 있습니다.”

20 엘리사가 말하였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나에게 가져다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가져다주었다.

21 엘리사가 수원지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치료하였으니 다시는 물 때문에 죽거나 씨가 마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

22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물은 치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엡 1:4-5

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 엡 3:17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 왕상 4:20-21

20 유대와 이스라엘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수가 많아졌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21 솔로몬은 강에서부터 블레셋 족속의 땅까지와 이집트 경계까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 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다.

### 왕상 5:2-5

2 솔로몬도 히람에게 전갈을 보내어 말하였다.

3 “왕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아시듯이, 아버지는 여호와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원수들을 그 발아래 두실 때까지 아버지를 에워싼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두루 평온하게 하시어, 대적도 없고 악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5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네 뒤를 이어 너의 보좌에 앉힐 너의 아들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 시 24:1, 7-10

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 세상과 그 안에 거주하는 이들이 다 여호와와 것이라네.

7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 건디어 온 문들아! 들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8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시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9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 건디어 온 문들아! 들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10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 계 11:15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 마 16:28

28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국 안에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 마 17:1-5

1 육 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2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3 보아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4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다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5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보아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의 읽을 말씀

## 열왕기하 4 장 9 절 각주

[1]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행자(비교 삼상 2 장 각주 35)로서 처신하였다. 신약의 믿는 이들도 이와 동일하게 처신해야 한다(비교 행 28 장 각주 9 과 딤편 6 장 각주 11).

## 열왕기하 2 장 21 절 각주

[1] 여리고(왕하 2:4)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사탄을 상징한다(히 2:14).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물을 치료한 기적과 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요 2:3-11)의 의미는 동일하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 열왕기상 4 장 21 절 각주

[1] 즉, 유프라테스강. 4 장 24 절에서도 동일하다. 솔로몬의 통치권은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족속의 땅까지와 이집트 경계까지에 미쳤는데(대하 9:26),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창 15:18, 출 23:31, 신 11:24).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신 후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복원될 때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다(참조 창 15 장 각주 18).

## 7/13 수요일

메시지 5 -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교회 건축을 위한, 타고난 능력에 대비되는 성숙한 생명의 부활한 능력

메시지 6 -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성막인 교회생활에서 성전인 교회생활로 주님과 함께 전진함

## 고전 1:23-24, 29-30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24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9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 빌 3:3-4, 7-8

3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4 사실 나에게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7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 엡 3:20-21a

20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시 26:8

8 오, 여호와님! 저는 주님의 처소인 주님의 집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 시 84:1, 4-5

1 오, 만군의 여호와님! 주님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4 주님의 집에 거주하는 이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셀라

5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 오늘의 읽을 말씀

#### 열왕기상 4 장 30 절 각주

[1] 솔로몬의 지혜는 전적으로 물질적인 영역에 있었으며 영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 솔로몬의 지혜는 바울의 지혜와 완전히 달랐는데, 바울의 지혜는 영적인 지혜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엡 3:17), 우리가 그 영에 따라 행하며 처신하는 것(롬 8:4), 두 영 곧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롬 8:16)에 관한 것이었다. 솔로몬의 지혜는 장차 올 참지혜의 그림자였다. 참지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셨는데(골 2:9),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어(고전 1:24, 30),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신다. 이것은 어떠한 지혜인지!

#### 열왕기상 11 장 43 절 각주

[1] 솔로몬은 어둡고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죽었다(왕상 11:41-43).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떨어졌으며(마 6:29, 벘전 1:24) 그의 찬란한 업적은 그가 말하였던 것처럼 '허무 중의 허무'(전 1:2)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표인 그를 통하여 하신 일은 영원토록 남아 있다(참조 왕상 2 장 각주 1).

영적인 생명의 빛 아래서 볼 때, 분명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생명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의 지혜는 은사에 속한 것이었지 생명의 분량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이룬 업적은 그가 하나님께 은사로 받은 지혜의 능력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었지, 신성한 생명의 성숙에 따라 나타난 능력이 아니었다. 생명을 떠난 능력은 마치 뱀과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독을 주입하지만, 생명은 비둘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한다. 룻기 4 장 각주 18 과 비교.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최고 수준으로 누리는 데 이르렀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생명이 그다지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정욕에 빠졌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좋은 땅을 누리는 것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그의 아버지 다윗도 동일하게 이 끔찍하고 추악한 죄 때문에 실패하였다(삼하 11 장). 솔로몬이 이 사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한 것은 그의 아버지의 실패보다 훨씬 엄중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의 후손은 그들의 왕국의 90 퍼센트 이상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민은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 가운데 발생한 분열과 혼돈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잃어버렸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외국 땅에서 포로가 되어 버렸다.

솔로몬의 실패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경고와 경종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정욕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우리는 교회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교회생활의 찬란한 방면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 열왕기상 6 장 1 절 각주

[1]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따른 것이었다(왕상 5:5, 삼하 7:12-13).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왕의 명령에 따라, 다윗이 준비해 둔 재료들을 가지고(대상 22:6-11, 14-16),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분 자신의 도안에 따라(대상 28:11-19, 비교 창 6:14-16, 출 25:8-9) 성전을 건축하였다.

#### 열왕기상 6 장 2 절 각주

[1] 성전의 크기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크기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지성소의 크기의 두 배였다(왕상 6:2, 20, 비교 출 26 장 각주 3, 각주 18, 각주 33). 더욱이 궤를 제외한(왕상 6:19) 기구들과 집기들의 크기와 수도 크게 증가되었다(대하 4:1-8). 이것은 비록 (궤로 상징되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확대되실 수 없으셨지만, 성전과 그 기구들과 집기들로 상징된, 그분의 모든 풍성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크게 증가하고 확대됨으로써(엡 3:8, 14-19, 빌 3:7-14) 그분의 확대된 표현과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에스겔서 40 장 각주 1 둘째 단락 참조.

**7/14 목요일**

메시지 7 - 성전 재료들의 내재적인 의미

메시지 8 -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람

**왕상 5:17-18**

17 왕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다듬은 돌로 집의 기초를 놓기 위하여 큰 돌들과 값진 돌들을 떠냈다.

18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고, 집을 건축할 재목과 돌을 준비하였다.

**왕상 6:9-10, 15-16, 23**

9 이렇게 그는 집을 건축하여 마무리하였는데, 그 집을 백향목 들보와 널빤지로 덮었다.

10 또 온 집을 둘러 가며 높이 오 규빗씩 여러 층을 지었는데, 그 구조물은 백향목 재목으로 집에 연결되어 있었다.

15 그는 백향목 널빤지로 집 안 벽을 만들었는데, 집의 안쪽을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나무로 입혔다. 그리고 집의 바닥에는 편백나무 널빤지를 깔았다.

16 또 그는 집의 뒤쪽 이십 규빗을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만들어 안에 있는 맨 안쪽 성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23 그런 다음 맨 안쪽 성소에 올리브 나무로 십 규빗 높이의 두 그룹을 만들었다.

**왕상 6:34**

34 편백 나무로 된 문짝 돌을 한 문짝이 두 쪽으로 접히고, 다른 문짝도 두 쪽으로 접히게 만들었다.

**왕상 7:14-15**

14 히람은 납달리 지파에 속한 한 과부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솟 기술자였다. 히람은 솟을 다루는 온갖 일에 지혜와 총명과 기술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그가 솔로몬왕에게 와서 자신의 모든 일을 하였다.

15 그는 두 솟 기둥을 만들었는데, 각 기둥의

높이가 십팔 규빗이었고 각 기둥의 둘레가 십이 규빗이었다.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계 3:12**

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엡 2:20-22**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열왕기상 6 장 1 절 각주**

[2] 성전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대치하였다. 성전은 먼저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체현으로서(골 2:9)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이셨다(요 2:19-21, 1:14). 성전은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모든 믿는 이를 포함하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대로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고전 3:16-17, 6:19, 엡 2:21-22).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며,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다(엡 1:22-23, 골 1:18 상). 몸은 머리의 확대이며, 결국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솔로몬과 그가 건축한 성전은 각각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의 예표이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과 실재와 목표이다. 솔로몬과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러한 역사에서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구약 안에서 예표적으로 성취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이것은 역사서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성전은 모리아산이라고도 불리는 시온산의 터 위에 건축되었는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자(창 22:2) 다윗이 여호와께 자신의 희생 제물을 바친 곳이다(대상 21:18-22:1, 대하 3:1).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그리스도는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진 곳과 동일한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참조 창 22 장 각주 2 과 막 10 장 각주 1).

**열왕기상 7 장 15 절 각주**

[1] 솔로몬이 성전 앞에 세운 두 개의 큰 기둥은 성전 외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성경에서 기둥은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표징, 곧 증거이다(창 28:18-19 상, 22 상, 왕상 7:15-22, 갈 2:9, 딤페전 3:15, 계 3:12). 여기에 두 기둥이 있었다는 것은 (숫자 2가 증거의 수이기 때문에) 이 기둥들이 하나의 표지판과 같이 하나님의 건축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증거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두 기둥의 이름(왕상 7:21 과 각주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건축물을 세우시리라는 것(비교 마 16:18)과, 참된 능력이 건축물 안에 있다는 것(비교 엡 3:17-18)을 증언한다. 예표에서 솟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출 27:1-8, 민 21:8-9, 요 3:14).

성전의 두 못 기둥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지탱하는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비교 계 1:15 과 각주 15, 각주 15). 이러한 그리스도는, 교회생활 안에서 믿는 이들에게 체험되셔야 하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지탱하는 기둥들로 조성되도록 그들 안에 일해 넣어지셔야 한다.

### 7/15 금요일

메시지 9 -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성전

메시지 10 - 주님의 회복 - 시온을 건축하는 것

#### 출 24:16

16 여호와와 영광이 시나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육 일 동안 산을 덮었다.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 출 40:34-35

34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35 모세는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 왕상 8:10-11

10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와 집을 가득 채웠다.

11 제사장들은 구름 때문에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영광이 여호와와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 행 7:2, 55

2 스테반이 말하였다. “형제들과 어르신 여러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55 그러나 스테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여겨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 요 17:22

22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엡 3:21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계 5:13

13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계 21:9-11

9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 시 48:2, 11-12

2 우뚝 솟아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인 북편 끝 시온산! 이는 크신 왕의 성이라네.

11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이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크게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12 너희는 시온을 거닐며 그곳을 두루 돌면서 그 망대들을 세어 보아라.

#### 시 20:2

2 그분께서 성소로부터 그대에게 도움을 보내시며 시온으로부터 그대를 지지해 주시고

#### 시 50:2

2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은 빛나신다네.

#### 시 53:6a

6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 된 데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야곱이 크게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 시 87:2

2 여호와와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니

#### 계 2:7, 11, 17, 26-28

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11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는 결코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1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26 이기는 이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27 그는 질그릇들을 부수듯이,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권위를 줄 것이다.

28 나는 또 그에게 셋별을 줄 것이다.

#### 계 3:5, 12, 20-21

5 이기는 이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20 보아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21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 오늘의 읽을 말씀

#### 출애굽기 40 장 34 절 각주

[2]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 곧 표현되신 하나님 자신이다. 회막을 덮은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바깥 부분이며 외적인 덮개였다. 회막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구름을 볼 수 있었지만, 성막 안의 지성소(레 16:15, 히 9:7) 안에까지 들어간 대제사장은 성막의 내적인 영광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생활을 체험하면서 계속 전진하여 성막, 곧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상에 있는 떡을 누르고 분향단에서 증보기도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는 영광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비교 요 1 장 각주 14 셋째 단락).

#### 열왕기상 8 장 11 절 각주

[1]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것(비교 출 40:34)은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을 땅으로 모셔 오고, 땅이 하늘들과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창세기 28 장 각주 12 참조.

#### 요한계시록 21 장 11 절 각주

[1]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이며,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해졌고, 이 영광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전 2:7, 뵤전 5:10, 살전 2:12). 우리는 지금 이 영광 안으로 변화되는 중이며(고후 3:18), 또한 이 영광 안으로 이끌릴 것이다(히 2:10).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되어(롬 8:17, 30)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 요한계시록 21 장 11 절 각주

[2] 직역하면, 발광체. 혹은, 빛을 지닌 것. 오늘날 빛의 자녀들인(엡 5:8) 믿는 이들은 세상의 빛이며(마 5:14),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빛을 낸다(빌 2:15). 결국 모든 성도들의 구성체인 새 예루살렘은 빛을 지닌 존재가 되어, 성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을 비출 것이다(계 21:24).

#### 요한계시록 21 장 11 절 각주

[3] 보석은 빛이 아니라 빛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보석 그 자체에는 빛이 없고, 하나님이신 빛이 보석 안에 일해 넣어져 그 보석을 통해 빛을 낸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될 것이므로, 비추는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해 넣어지심으로써 반드시 귀한 보석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것을 통해 우리가 빛을 지닌 사람들이 되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 요한계시록 21 장 11 절 각주

[4]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과 같고(참조 계 4:3 과 각주 3), 새 예루살렘의 빛은 벽옥과 같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한다.

#### 시편 48 편 2 절 각주

[1] 시온은 다윗왕의 성이자(삼하 5:7) 예루살렘성의 중심으로, 그곳에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건축되었다(시 9:11, 74:2, 76:2 하, 135:21, 사 8:18).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인 교회 안의 이기는 이들의 무리 곧 온전하게 되고 성숙된

하나님-사람들을 나타내는 예표이다(히 12:22, 계 14:1-5).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아름다운 곳(시 48:2, 50:2)인 시온은 이기는 이들을 나타내는 예표이며, 그들은 교회와 고봉, 중심, 높아짐, 강화됨, 풍성함, 아름다움, 실재이다(시 48:2, 11-12, 20:2, 53:6 상, 87:2). 시온인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몸의 건축을 완결하여, 완결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거처인 지성소를 이끌어 온다(계 21:1-3, 16, 22).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이 될 것이며, 모든 믿는 이들이 이기는 이들이 될 것이다(계 21:7 과 각주 7).

#### 시편 50 편 2 절 각주

[1] 시편 48 편 각주 2 참조. 시온은 교회의 예표로서, 결국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세 부분으로 된 선민의 우주적이며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더없이 아름답다(비교 엡 2:10, 계 21:10-21).

#### 요한계시록 2 장 7 절 각주

[4] 이 일곱 서신에서 이긴다는 것은 교회들의 타락한 상황을 이기는 것이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이 서신에서 이긴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성직자 계급 제도인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 7/16 토요일

메시지 11 - 변절과 산당, 그리고 하나라는 진정한 터의 회복

메시지 12 -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이기는 생활을 하여 생명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됨

## 신 12:5, 8

5 오직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8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자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이 따라서는 안 됩니다.

## 시 43:3

3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보내 주시어 저를 인도하게 하시고 저를 주님의 거룩한 산과 주님의 장막들로 데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 골 3:10-11

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 시 133:1

1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 롬 5:17, 21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 골 1:10

10 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앎으로써 자라기를 바랍니다.

## 엡 5:2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 요 6:63

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 계 3:12

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 오늘의 읽을 말씀

## 요한계시록 2장 7절 각주

[7] 종교는 항상 가르치지만, 주님은 먹이신다(요 6:35).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일을 했는데, 그것은 믿는 이들을 먹이는 일이었다(고전 3:2). 합당한 교회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회복하기 위하여, 즉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합당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만 정신적으로 가르침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어야 한다(요 6:57). 심지어 성경 말씀도 다만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키는 교리로만 여겨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을 양육하는 양식으로 여겨야 한다(마 4:4, 히 5:12-14).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이 서신에서 주님은 이기는 이에게 생명나무를 주시어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까지와 16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먹는 문제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 주님은 이기는 이들에게 감추어진 만나(계 2:17)를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감추어진 만남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를 먹은 것을 가리킨다(출 16:14-16, 31).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 주님은 자신에게 문을 열어 주는 사람과 함께 정찬을 드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정찬을 먹는다는 것은 다만 한 가지 음식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잔치의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을 먹은 것을 가리킨다(수 5:10-12).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양식을 먹는 것, 즉 생명나무와 만나와 좋은 땅의 소산으로 예표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합당한 양식을 먹는 것을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생명나무와 만나와 좋은 땅의 소산들은 모두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들이다. 교회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데서 지식을 위해 교리를 가르치는 데로 빗나가게 된다.

교회가 타락한 때에는 발람의 가르침(계 2:14)과 니골라당의 가르침(계 2:15)과 이세벨의 가르침(계 2:20)과 사탄의 깊은 것들에 대한 가르침(계 2:24)이 있다. 지금 이 서신들에서 주님은 우리의 양식 공급이신 그분 자신을 합당하게 먹는 것을 회복하신다. 우리는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분을 먹을 뿐만 아니라, 풍성이 가득한 잔치 음식이신 그분을 먹어야 한다.

### 요한계시록 2장 7절 각주

[6] 여기에서 '나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이며, '목재'를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나무'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다.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항상 하나님의 모든 풍성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골 2:9)를 상징하는데, 이분은 우리의 양식(창 2:9, 3:22, 24, 계 22:2, 14, 19)이 되신다. 여기에서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한 토막의 목재인 나무로 암시되어 있음-벧전 2:24) 부활하신(하나님의 생명으로 암시되어 있음-요 11:25)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회 안에 계시며,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 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을 양육하기 위한 생명나무가 되실 것이다(계 22:2, 14).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었다(창 2:9, 16). 그러나 사람의 타락 때문에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사람에게 막혔다(창 3:22-24).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사람이 생명나무를 접촉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으며(히 10:19-20), 이 생명나무는 바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했을 때, 종교가 지식과 함께 몰래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일에서 빛나가게 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상으로 주시어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종교와 그 지식을 떠나 그분 자신을 누리는 일로 돌아서도록 하는 격려제이다. 주님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교회를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회복하신다. 주님께서 이기는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온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교회의 타락 때문에, 주님은 이기는 이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대신하게 하셨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일의 영원한 결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이 생명나무를 누리게 될 것인데,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영원한 몫(계 22:2, 14, 19)이 되시는, 모든 신성한 풍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이다. 종교는 빛나갔고 교회는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의 지혜로 장차 올 왕국에서 그분 자신을 누리는 것을 하나의 보상으로 두셨다. 이것은 믿는 이들을 격려하여 그들이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가르침들 안에 있는 빛나가게 하는 종교적인 지식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생명 공급으로 누리는 데로 돌아와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교회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누릴수록 그 내용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다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놓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상실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등잔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이다. 이 세 가지, 즉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누리는 것과 주님의 증거가 되는 것은 함께한다.

### 7/17 주일

#### 시 72:1-8, 16-19

- 1 오, 하나님! 주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님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 2 그분께서 주님의 백성을 의로 재판하시며 주님의 가난한 사람들을 정의로 재판하실 것입니다.
- 3 산들이 백성에게 화평을 가져오고 언덕들도 의로 그리할 것입니다.
- 4 그분께서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을 재판하시리니 빈곤한 이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억압하는 이를 짓밟으실 것입니다.
- 5 해가 있는 한, 달이 있는 한 그들은 대대로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 6 그분은 베어 낸 풀 위의 비처럼, 대지를 적시는 굵은 빗줄기처럼 오실 것입니다.
- 7 그분의 날들 동안 의인들이 흥왕하며 달이 없어질 때까지 화평이 가득할 것입니다.
- 8 그분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통치하실 것입니다.
- 16 땅에 곡식이 풍성하고 산꼭대기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열매는 레바논 숲처럼 물결치며 그 성 사람들은 땅의 이파리처럼 무성할 것입니다.
- 17 그분의 이름이 영원하며 해가 있는 한 그분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리니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분을 복 있다 할 것입니다.
- 18 홀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19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온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또 아멘.